

교회사 II · CHURCH HISTORY II

급진적 종교개혁과 칼뱅의 개혁주의

The Radical Reformation & Calvin's Reformed Tradition

Chang Lee, Ph.D.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e and Seminary



이번 주 강의의 흐름

두 흐름으로 보는 종교개혁의 확산

강의 포인트: 종교개혁의 발발, 루터에 이어, 이 개혁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

흐름 A — 급진적 종교개혁

- 츠빙글리와 취리히 종교개혁
-
- '형제들'과 신자의 침(세)례 Believer's Baptism
-
- 최초의 재세(침)례파(1525)와 자유교회
-
- 순교 · 확산 · 신학적 유산

흐름 B — 칼뱅의 개혁주의

- 칼뱅의 회심과 여정
-
- 『기독교 강요』의 신학 체계
-
- 제네바 — 개혁의 실험실
-
-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종교 개혁의 확산



세 갈래의 종교개혁 (Three Branches of the Reformation)

루터파·개혁신파·재세(침)례파의 분기점을 이해하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의 파악



신자의 교회 (Believers' Church)

재세(침)례파의 '신자의 침(세)례'와 자원하는 교회 개념이 왜 혁명적이었는지, 침례교 전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규명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칼뱅 신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교리를, 루터의 이신칭의와 비교 분석



적용 (Contemporary Application)

자유교회 원리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오늘의 신앙과 교회론에 주는 함의

역사적 배경

하나의 개혁, 세 개의 갈래

초기 개신교: 루터파(Lutheran), 개혁파(Reformed), 재세(침)레파(Anabaptist), 성공회(Anglican)

루터파 (Lutheran)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허용

아디아포라(adiaphora, 무관한 것들)구원에 본질적이지 않으므로 자유의 영역

국가교회 유지 · 제후의 보호

개혁파 (Reformed)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배격

성상 제거, 오르간 철거, 제의 폐기, 벽은 흰 회칠. 츠빙글리는 뛰어난 음악가였음에도 예배에서 악기 제거

도시·국가의 도덕적 개혁 추구

재세(침)레파 (Anabaptist)

사도적 교회의 온전한 회복

개혁(reformatio)이 아니라 회복(restitutio)

교회와 국가의 철저한 분리

공통: sola Scriptura, 회색지대-성경이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항목

루터와 칼뱅은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교회를 고치려 했고, 재세(침)레파는 콘스탄티누스 이전으로 돌아가려 했다.

뚜렷한 교리적 해석

	성경이 침묵할 때	판단 기준	결과
루터파	허용	복음을 가리는가	형식 유지, 아디아포라
개혁파	금지	하나님이 명하셨는가	형식 제거, 단순한 예배
재세(침)례 파	질문 자체가 다름	사도적 교회와 같은가	국가교회 자체를 거부
성공회	대체로 허용	국왕과 교회의 질서	예전 유지, 개혁파 신학



Christine Song, 연합의 힘 – 함께 일어서는 우리
(Strength in Unity – Together We Rise) 크기:
22 × 4.5 × 14.5 inches 제작 연도: 2025 재료:
Stoneware

츠빙글리와 취리히의 개혁

울리히 츠빙글리 (Ulrich Zwingli, 1484-1531)

1519년, 취리히 대성당의 '민중의 사제'가 됨. 논제 계시가 아니라 성경 강해 설교로 개혁을 시작.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의 영향으로 신약 원어와 성경의 원어적 메시지를 깊이 존중.

루터보다 더 엄격히 성경을 적용 — 성경이 '명하지 않은' 촛불·성상·오르간·성화 제거.

1531년 카펠 전투에서 전사. 이후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를 거쳐 개혁의 중심은 제네바로 이동.

스위스 내전: 연방 안에서 개신교 도시들과 가톨릭 주(州)와 충돌



두 전통의 갈림

루터파 vs 개혁파의 결정적 차이는 예정이 아니라 성찬(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 이 차이에서 루터파와 개혁파(Reformed) 두 전통이 태어난다.

개혁의 속도는 누가 정하는가

스위스에서 종교가 갈린 것은 신학 논쟁의 결과라기보다, 인쇄물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 용병 연금으로 먹고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경계선이 그대로 신앙의 경계선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은 옳아서 확산된 것일까?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확산된 것일까?"



1523

취리히 논쟁 (Zurich Dispu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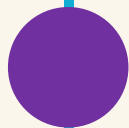
츠빙글리는 시의회가 주관한 공개 논쟁으로 개혁을 추진. 성경 논증에서는 이겼으나, 무엇을 언제 시행할지는 시의회가 결정



1524

젊은 동료들의 항의

콘라트 그레벨(Conrad Grebel, c. 1498–1526)과 펠릭스 만츠(Felix Manz, c. 1498–1527)는 미사와 성상 폐지가 거듭 미뤄지는 것에 못마땅하게 여김, —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왜 시의회의 허락을 기다리는가?



1525. 1. 17

유아 침(세)례 논쟁

시의회 앞 공개 토론에서 형제들이 패소. 이튿날 시의회는 8일 안에 모든 유아에게 침(세)례를 베풀라 명하고 그들의 성경 모임을 금지 함

갈등의 본질은 침(세)례가 아니라 권위와 주도권 재편: 개혁의 기준은 성경인가, 시의회의 결정인가.

흐름 A — 급진적 종교개혁 ②

"더 나아가야 한다" (going further) — 스위스 형제단(Swiss Brethren)의 등장

그레벨(Grebel)과 만츠(Manz)는 처음엔 츠빙글리를 지지했으나,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며 사도적 교회와 당대 교회의 차이를 인지

1 문제 제기

츠빙글리는 자신의 원리를 끝까지 밀고 가지 않았다 — 신약에는 교회와 사회의 뚜렷한 대조가 있다.

2 교회의 본질

교회는 태어남으로가 아니라 '개인의 결단'으로 들어가는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3 유아 침(세)례 거부

유아 침(세)례는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를 낳아, 신앙의 핵심인 개인적 결단을 가린다.

신자의 침(세)례 vs 유아 침(세)례

침(세)례를 누구에게 베푸는가의 문제는,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신자의 침(세)례

credobaptism · 라틴어 credo '내가 믿는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만 침(세)례를 베푼다

침(세)례 = 개인적 회심과 제자도의 공적 표시

교회 =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이들의 공동체

유아 침(세)례

paedobaptism · 그리스어 pais '어린이'

태어난 모든 아기가 침(세)례로 교회의 일원이 됨

교회 = 사회 전체와 사실상 동일 (Christendom)

재세(침)례파가 보기에 이는 '이름뿐인' 명목적 신앙

“재세(침)례(Anabaptist)” — 그리스어 *ana* '다시' + *baptizein* '침(세)례를 주다'.
실은 '유아 침(세)례'는 무효이므로 신앙 고백 후의 침(세)례가 첫 참된 침(세)례라는 주장

1525년 1월 21일: 자유교회(free church)의 탄생

그날 밤, 만츠의 집에서

취리히 시의회가 8일 내 유아 침(세)례를 명령하고 성경 모임을 금지한 직후.

전직 사제 게오르크 블라우로크(George Blaurock, c. 1492–1529)가 그레벨에게 사도적 방식의 침(세)례 — 신앙 고백 위의 침(세)례 — 를 청함.

그레벨이 그에게 침(세)례를 베풀고, 블라우로크가 다른 이들에게 침(세)례를 베풀.

곧 출리콘으로 물러가 최초의 재세(침)례파 회중 — 근대 최초의 '자유교회' — 를 세움.



자유교회 (free church)

영어 *free church* · 독일어 *Freikirche*

국가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자발적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근대 교회사에 처음 등장한 형태.

슬라이트하임 신앙고백 (1527)

박해가 한창이던 때 미하엘 자틀러(Michael Sattler, c. 1490–1527)가 주도해 정리한 일곱 조항. 재세(침)례파 최초의 공동 신앙 기준이다.

제1~3조 — 교회를 세우는 조항

Brotherly Union · 독일어 Schleithheimer Artikel

- ① 침(세)례 —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만
- ② 파문(der Bann) — 범죄한 교인을 성찬에서 끊는다
- ③ 성찬 —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 참여한다

제4~7조 — 교회를 지키는 조항

모두 성경 본문에 근거를 둔다

- ④ 분리 —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 ⑤ 목자 — 회중이 세우고 부양한다
- ⑥ 칼(Schwert) — 무력·공직 거부 ⑦ 맹세 거부 (마 5:34)

자틀러는 이 고백을 정리한 지 석 달 만에 처형
문서 한 장이 곧 사형선고이던 시대=신앙에 생명을 걸던 시대

순교의 길, 그러나 확산되는 운동



1527

펠릭스 만츠(Felix Manz)의 순교

취리히 당국이 리마트 강에 그를 수장 — 최초의 재세(침)례파 순교자. “물을 원하니 물을 주라”는 잔혹한 조롱과 함께.



1527

양쪽 모두의 적

가톨릭과 주류 개신교 정부가 함께 이들을 단속했다. 1529년 슈파이어 제국의회는 재침(세)례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후예로 이어짐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1496–1561)를 따르는 메노나이트, 후터파, 그리고 침례교·퀘이커가 이 정신을 잇는다.

종교개혁기에 4,000~5,000 명의 재세(침)례파가 처형되었으나, 박해가 거셀수록 운동은 더 자랐다.



최초의 순교, 펠릭스 만츠가 수장된 리마트 강: “여기 리마트 강의 중간 지점에, 종교개혁 시기인 1527년부터 1532년까지 펠릭스 만츠와 다른 다섯 명의 재세례파 교도가 수장되었다. 취리히에서 1614년에 마지막으로 처형된 재세례파는 한스 랜디스(Hans Landis)였다”

Source, In&Out(<http://www.unipress.co.kr>,

— 로마서와 산상수훈

같은 성경을 읽었으나,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가 두 전통이 나뉘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롬 1:17)

물음: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산상수훈은 인간의 무능을 비추어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거울이다

재세(침)레파 —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 5-7 장)

물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산상수훈은 이상이 아니라 오늘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
원수 사랑, 맹세 거부, 비폭력

재세(침)레파는 이신칭의 수용, 다만 믿음(Glaube)과 따름(Nachfolge)을 결코 분리하지 않음

말씀과 순종— 디르크 빌럼스

1569년, 네덜란드 아스페런

주요 사건 전개 과정

감옥 탈출: 빌럼스는 감옥에서 빠져나와 공공 얼어붙은 해자(성 밖의 방어용 수로)를 건너 도주함.

추격 및 사고 발생: 그를 뒤쫓던 간수가 얼음이 깨지면서 차가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함. 당시 빌럼스는 이미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한 상태였음.

원수 구호: 빌럼스는 도망치는 대신 뒤를 돌아 물에 빠진 간수를 끌어올려 목숨을 구함.

재체포: 간수를 구한 직후 빌럼스는 그 자리에서 다시 붙잡힘.

최후: 체포된 지 몇 달 후, 빌럼스는 결국 화형(火刑)에 처해짐.

3. 사건의 의의 및 평가

원수 사랑의 실천: 자신을 핍박하고 체포하려던 '원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침.

철저한 평화주의 구현: 예수의 가르침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복음의 명령을 타협 없이 온몸으로 실천한 재세레파 신앙의 상징적인 사건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

— 재세(침)레파에게 산상수훈은 해석할 본문이 아니라
실행할 명령이었다

윈스터 사건 (1534-35) 과 그 그늘

급진적 Anabaptist가 독일의 도시 윈스터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천년왕국(새 예루살렘)을 세우려다 비극적으로 진압된 종교적·정치적 폭동



1 점령

종말론에 사로잡힌 급진 세력이 독일 윈스터를 장악하고 그곳을 새 예루살렘이라 선포했다. 얀 마티스(Jan Matthys, d. 1534)와 레이던의 얀(Jan van Leiden, 1509-1536)이 주도했다.

2 파국

재산 공유와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반대자를 처형. 1535년 도시가 함락되며 지도자들은 고문 끝에 처형되어 철창에 매달렸다.

3 낙인

가톨릭과 주류 개신교 양쪽이 이 사건을 근거로 재세(침)례파 전체를 광신 집단으로 규정. 평화주의를 지킨 절대다수가 폭도로 몰려 함께 처형

흠어진 사람들, 이어진 신앙



메노나이트 (Mennonites)

박해를 피해 프로이센·러시아를 거쳐 북미로 이주. 오늘날 평화 증언과 국제 구호 사업으로 그 정신을 잇는다.



후터라이트 (Hutterites)

야코프 후터(Jakob Hutter, d. 1536)에게서 시작. 사유재산을 두지 않는 공동 생활을 지금도 유지하며 주로 캐나다·미국 대평원에 산다.



아미쉬 (Amish)

1693년 야코프 암만(Jakob Ammann)의 분리로 형성. 세상과의 구별 원칙을 엄격히 지켜 현대 문명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세(침)례파가 남긴 세 유산



교회와 국가의 분리

교회는 자발적 공동체이며 시민사회와 구별된다 — 근대 종교자유 사상의 선구.



급진적 제자도

산상수훈의 문자적 순종. 무력 사용·공직·맹세를 거부한 평화주의(독일어: Nachfolge, 그리스도를 따름).



신자의 교회

권징을 통해 순결을 지키는 '성도의 공동체'. 침례교·회중교회 교회론의 원형.

장 칼뱅 (John Calvin, 1509–1564): 학자에서 개혁자로; 가장 강력한 기독교 지도자

1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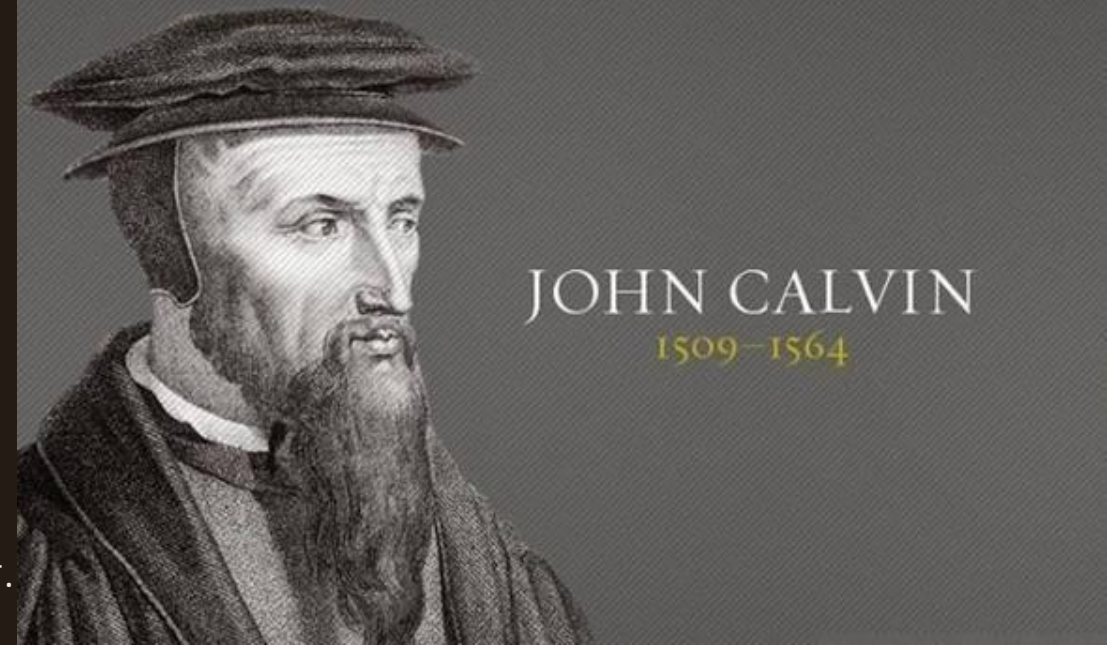
파리 북동쪽 작은 마을 출생. 14세에 파리 대학 입학,
논리와 문장력을 연마. 이후 아버지 뜻에 따라 법학 수학.

1533

'예상치 못한 회심(unexpected conversion)'.
고전 학자의 길을 접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킴.

1536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 출간.
하룻밤 사이 유럽의 명성을 얻음. 이후 파렐(William Farel, 1489–1565)의 강권으로 제네바에 정착.



『기독교 강요』 — 개신교 신학의 체계화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라틴어 원제 · 영역 제목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년 바젤 초판(6장, 516쪽) → 1559/60년 최종판(4권, 80장)으로 확대.

당대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삼위일체·성육신 등 기본 교리를 포괄한 최초의 개신교 조직신학.

4권 구조: ①창조주 하나님 ②구속주 하나님 ③성령을 통한 은혜의 참여 ④교회와 성례라는 '외적 수단'.

명료·논리·가독성에서 종교개혁기 최고의 신학 저작으로 평가됨.

왜 중요한가

루터가 교리의 '불꽃'이라면, 칼뱅은 그것을 '체계'로 세운 사람

제네바 아카데미와 함께, 『강요』는 네덜란드·스코틀랜드·프랑스·잉글랜드로 개혁주의를 퍼뜨린 강력한 통로

제네바: 개혁의 실험실

훈련된 그리스도인 공동체

칼뱅의 자리 — 그는 제네바의 통치자가 아니었다 1538년 시의회에 의해 추방되었다가 1541년 자신의 조건대로 복귀.

그가 남긴 것은 권력이 아니라 제도 — 교회 헌장(1541), 목사회, 장로들의 권징, 제네바 아카데미(1559).

교회의 권징권은 국가가 아니라 교회가 갖는다는 원칙. 삶이 기준에 못 미치면 성찬에서 제외했다 — 개신교 내 가장 엄격한 권징;

세르베투스 사건 3년 뒤인 1556년 제네바로 피신해 영국인 교회를 섬긴 존 녹스(John Knox, c. 1514–1572)는 이곳을 "사도 시대 이후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로 인정



제네바 시에 있는 종교개혁자 동상. 10명의 종교개혁자가 새겨진 벽 가운데 베자, 칼뱅, 파렐, 녹스 4인의 동상이 도드라져 세워져 있다. 사진에서 왼쪽의 두 번째가 칼뱅으로 성서를 손에 들고 있다.

칼뱅에게 화형을 당한 세르베투스의 초상. 그가 화형을 당했다는 것을 나타내듯이 그의 초상 위편에 그가 화형당하는 장면을 그려놓았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576435>

1553년 세르베투스 사건 — 누가
처형했는가

재판도 판결도 제네바 시의회(Petit
Conseil)의 주도권:

시의회는
취리히·베른·바젤·샤프하우젠에 자문을
구했고, 네 도시 모두 유죄 의견을 송부.

칼뱅은 고발인이자 증인; 화형 대신
참수를 청함, 이후 처형의 정당성을
변호함; —

면책할 수 없는 그들로 남음:

세르베투스의 운명이 "칼빈의 폭압적이고 편협한 성격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칼빈의 결점을 부각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고든은
칼빈이 이단을 사형에 처할 만한 중죄로 여겼지만,
"세르베투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바랐다"고
강조(Gordon, Calvin, 223)

<https://www.desiringgod.org/articles/the-servetus-affair>



Michael Servetus (1511-1553)

하나님의 주권 — 칼뱅 신학의 심장

루터의 중심이 '이신칭의'라면, 칼뱅의 중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

루터의 축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위엄 → 용서의 기적을 부각

강조점: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칼뱅의 축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엄 → 그분 목적의 불변성을 확신

강조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었으나, 루터는 '용서의 기적'을, 칼뱅은 '목적의 견고함'을 보았다.

예정(praedestinatio)과 개혁주의의 형성

주의: 초기 개혁파와 루터파는 예정에서 대체로 일치 칼뱅주의의 '표자'로서의 예정론은 다음 세기(도르트 회의)에 확립

예정

praedestinatio

영원 전 하나님의 작정. 칼뱅에게는 '값없는 구원'의 표현이자 신앙의 확신의 근거.

택자

electi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칼뱅은 침(세)례·성찬 참여, 도덕적 삶, 신앙 고백을 분별의 척도로 제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ī Deo gloria

구원의 전 과정이 인간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 개혁주의 경건의 귀결.

도르트 회의 및 도르트 신조 (Synod of Dort, 1618–1619)

배경: 알미니우스파(항론파)의 자유의지 주장에 맞서 정통 칼빈주의 교리를 체계화한 국제 종교 회의

T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함.

U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나 조건 없이 주권적으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심.

L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임.

I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음.

P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성도는 끝까지 보호하셔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심.

종합

세 전통 한눈에 보기

	루터파 Lutheran	개혁파(칼뱅) Reformed	재세(침)례파 Anabaptist
중심 사상	이신칭의	하나님의 주권	급진적 제자도
침(세)례	유아 침(세)례	유아 침(세)례	신자의 침(세)례
교회와 국가	국가교회	도시·국가의 개혁	철저한 분리(자유교회)
후예 전통	루터교회	장로교·개혁교회	침례교·메노나이트

우리의 뿌리, 우리의 신학

자유교회의 유산

침례교는 재세(침)례파와 '신자의 침(세)례·자유교회·정교분리'라는 유산을 공유한다.

교회는 태어나서가 아니라 거듭남과 고백으로 들어가는 '자원하는 공동체'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 자유는 순교의 값으로 얻어진 유산임을 기억한다.

주권과 소명

하나님의 주권은 숙명론이 아니라 확신·겸손·도덕적 능력의 원천이다.

칭의된 자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 칼뱅의 '거룩을 향한 부단한 노력'.

세상을 하나님의 법에 맞추려는 개혁주의의 사회적 활력을 오늘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핵심 정리와 이번 주 과제

핵심 정리

- 종교개혁은 루터파·개혁신파·재세(침)례파로 갈라졌고, 그 분기점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였다.
-
- 재세(침)례파의 신자의 침(세)례(credobaptism)와 자유교회(Freikirche)는 침례교 전통의 뿌리다.
-
- 칼뱅은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개신교 신학을 『기독교 강요』로 체계화했다.

독서 과제

셀리 제5부(재세(침)례파·칼뱅 관련 장) · (참고) 곤잘레스 『종교개혁사』 급진적 종교개혁·칼뱅 편

토론 주제

재세(침)례파의 '신자의 교회'와 칼뱅의 '하나님의 주권' 중 오늘 내 교회론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토론방에 게시하시오.

다음 주 예고 — 제5주차: 영국의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의 반동(트렌트 공의회)

